

8. 천국의 속성: 겸손과 용서(마 18장)

- * 1-10장: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과 이적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.
- * 11-12장: 세례요한마저 보인 천국 복음에 대한 저항은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질 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.
- * 13장: 천국 비유는 천국의 수용과 거부의 불가피성, 필연적 확장성, 천국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이야기 합니다.
- * 14-17장: 천국의 수용과 거부가 ‘안팎으로’ 심화/확산되는 과정 속에서도, 이방 여인의 ‘큰 믿음’을 통해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

◆ 18장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일명 ‘교회 장’입니다(‘에클레시아’(교회), 마 16:18; 18:17)

- “**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**”(1절).

1) 어린 아이(작은 자)와 같이 **겸손한 자**가 큰 자입니다(1-4절)

-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(3-4절)

2) 어린 아이(작은 자)를 **영접하는 자**가 큰 자입니다(5-14절)

-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(6-7절)

-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면(8-9절)

-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(10절): “**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**”

*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(12-14절): “**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...**”(14절)

3)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**죄를 용서하는 자**가 큰 자입니다(15-35절)

- 용서 원칙(15-20절): 1:1 -> 2~3:1 -> 교회:1 -> “**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**”(17절)

- “**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**”(20절)

- 용서 횟수: “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”(22절; 참조, 눅 17:3 “회개하거든 용서하라”)

*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(18:23-35): 만 달란트(= 6억 데나리온) ‘**빚진 자**’와 백 데나리온 ‘**빚진 동료**’: “**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**”(35절)

■ **곰곰이 생각하기/함께 나누기**

1) 천국은 **겸손한 자**, 작은 자를 **영접하는 자**, 회개한 자를 끝없이 **용서하는 자**가 크다 인정받는 곳입니다. 이상할 것 하나 없습니다. 온유하고 **겸손하신**(11:29)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이들을 **영접**하고 **용서**해 주심으로 시작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의 마음은, 여러분이 속한 구역은,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‘큰 자’로 인정하는 천국입니까?

2) 겸손한 성품, 약자 영접, 한없는 용서 이 세 가지는 “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**부인**하고 자기 십자가를 **지고** 나를 **따를 것이니라**”(16:24)에 대한 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구체적인 뜻이 해당 본문이나 17장에서 풀이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~ 늘 겸손하십니까? 정말 낮은 자를 선호하고 영접하십니까? 죄지은 자를 용서하십니까?